

영·한 성경번역에 나타난 내포절 주어의 격 변화 연구

장 영 준
(중앙대)

1.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영·한 성경번역에서 내포절 및 수식절의 주어의 격이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고찰하는 데 있다. 한국어의 주어는 흔히 ‘-이/가’라고 하는 주격조사로 표시된다. 즉 선행하는 명사가 자음으로 끝나면 주격조사 ‘-이’를, 선행하는 명사가 모음으로 끝나면 주격조사 ‘-가’를 사용한다. 그러나 중세 한국어에서는 동명사절과 같은 내포절 및 수식절의 주어를 속격 ‘-의’로 표시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불교 경전이라든가 기독교 성서와 같은 번역 자료들에서 두드러지는데, 기독교 성서는 비교적 최근에 발행된 번역본에서도 여전히 내포절과 수식절의 주어를 속격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현대 한국어에서는 동명사절을 포함한 내포절 및 수식절에서도 주어는 속격이 아니라 주격으로 실현되고 있다. 현대 한국어의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최근에 발행된 기독교 성서에서는 내포절과 수식절의 주어를 주격으로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영·한 성경번역의 판본을 비교함으로써 이러한 현상을 살펴보고, 내포절과 수식절의 주어가 속격에서 주격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언어학적, 번역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2절에서는 1954년 판 성경에 나타난 내포절 및 수식절의 주어의 격 형태를 살펴보고, 3절에서는 1973년도 개정판 성경에서 내포절 및 수식절의 주어가 주격으로 바뀌어 간행되고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4절은 본 논문의 요약 및 결론이다.

2. 1954년판에 나타난 속격 주어

2.1 현대 한국어의 속격 주어

다음 예에서 보듯이, 현대 한국어에서는 모든 주어가 주격조사를 가지며, 선행하는 주어의 어말 자음이 있고 없음을 따라 ‘-이’나 ‘-가’라는 격조사로 표시된다. 주격의 표시는 주절과 내포절 모두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 (1) a. 토끼가 귀가 크다.
 b. 철수가 [토끼가 귀가 크다]고 말했다.
 c. 토끼는 귀가 크다.

즉 (1a)에서 보듯이, 주절의 주어인 ‘토끼’는 문장의 주어로서 주격조사 ‘-가’로 표시된다. (1b)에서 보듯이, 내포절인 [토끼가 귀가 크다]에서 주어인 ‘토끼’는 여전히 주격조사 ‘-가’로 표시되고 있다. (1c)에서 주어인 ‘토끼’는 화제를 표시하는 조사 ‘-는’으로 표시되어있지만 여전히 문장의 주어이다.

수식절이나 내포절의 주어가 속격으로 표현되는 경우는 현대 한국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나, 일종의 굳어진 표현으로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볼 수 있다.

- (2) [나의 살던] 고향

일반적으로 내포절의 주어를 속격으로 표시하지는 않는데, (2)와 같은 예는 노랫말이나 시구로서 굳어진 특수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예문 (1b)

가 순전히 내포절인데 비해, (2)는 관형절 (혹은 관계절)이라는 차이가 있기는 하다. 더구나 어떤 이는 (2)의 “나의”가 주어가 아니라 “고향”을 직접 수식하는 속격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¹⁾ 비록 이러한 분석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러한 주장이 한국어에 속격 주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는 없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중세 한국어 자료에는 동명사절과 같은 내포절 및 수식절에서 주어가 규칙적으로 속격으로 나타난다. Jang(1995: 224)에서 인용한 다음 예문들을 보자.²⁾

- (3) a. 다만 [똥이] 달며 씹을 맛볼 것이라 (『소학언해』 6, 28a-b)
- b. 다만 [똥의] 달며 씹을 맛보아 (『동신속』, 효 4, 62b)
- (4) a. [제불이] 다 멀리서 찬탄하시는 말이라 (『월인석보』 18, 57b)
- b. [제불스] 다 멀리서 찬탄하시는 말이라 (『법화경』 6, 179a)

위 예문에서 보다시피 16세기 한국어에서는 내포절의 주어가 주격(예문 (3a))이나 속격(예문 (3b))로 나타난다. (3)에서는 []로 표시된 부분이 동명사 내포절이고, (4)에서는 []로 표시된 부분이 머리어 “말”을 꾸며주는 수식절이다. 예문 (4a)에서는 수식절의 주어가 주격으로 나타났으나, (4b)의 “스”은 중세 한국어 속격 표시로서 속격으로 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내포절과 수식절의 속격 현상은 근대 한국어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1954년 전후의 국어자료를 보면 속격주어가 매우 흔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Jang & Im(2010: 422)의 조사에 의하면, 내포절과 수식절에서 속격으로 나타나

1) 한남대학교의 손근원 교수는 일전에 사적으로 이러한 견해를 제시하였으나, 필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살던”의 주어가 여전히 필요한데 이를 만약 pro로 설정하고 “나의”를 “고향”을 수식하는 소유격으로 간주한다면, 이러한 분석은 [명사-pro]라는 일반적인 순서를 위반하고 [pro-명사]라는 어순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2) 예문 (3)-(9)에 인용된 자료들은 원문에 예일 로마자화로 표기되어있으나, 본 논문이 한국어로 된 관계로 한국어 원문으로 대체하였다. 이 예문들은 서정목(1981)을 인용한 Jang(1995)에서 재인용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는 서정목(1981)을 참고할 수 있다.

는 주어는 다음과 같이 광범위하게 발견된다.

- (5) a. [아라사의 원치 아니하는 바]요 (『협성회보』, 1898.3.19)
- b. [나라 일의 옳고 그른 것]을 서로 의론 할 때에 (『독립신문』, 1899.12.4)
- (6) a. [일본의 희망할 뿐] 아니라 (『대한매일신보』, 1905.1.13)
- b. [남작의 말함]을 듣고 나오는 지라 (『대한매일신보』, 1908.11.22)
- c. [우리의 감사 하는 바]이어나와 (『매일신보』, 1920.12.30)

위 예문들은 1905년부터 1920년대에 걸친 일제시대 한국어 자료이다. (5a)에서는 []로 표시된 부분이 불완전 명사 “바”를 꾸며주는 수식절이고, 이 수식절의 주어가 속격으로 실현되어있다. (5b)에서는 []로 표시된 부분이 역시 불완전 명사 “것”을 꾸며주는 수식절이며, 이 수식절의 주어인 “나라 일”이 속격으로 표시되어있다. (6a)에서는 []로 표시된 부분이 불완전 명사 “뿐”을 꾸미는 수식절이며, 이 수식절의 주어인 “일본”이 속격으로 실현되고 있다. 반면에 (6b)에서는 []로 표시된 부분이 동명사절이고, 주어는 역시 속격형인 “남작의”로 실현되어있다. 마지막으로 (6c)에서는 []로 표시된 부분이 불완전 명사 “바”를 수식하는 절로서 주어가 속격형인 “우리의”로 실현되어있다.

이러한 속격 현상은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1960년대 언론 자료에서도 발견됨을 알 수 있다. Jang & Im (2010: 423)에서 인용한 다음 예문들을 보자.

- (7) a. [일본의 부리는 짐승] 노릇을 한 것 뿐 (『사상계』, 1965)
- b. [사람의 정신이 없으면] 보이는 것은 원수뿐이요 (『사상계』, 1965)
- (8) [위대한 인물들의 가지었던 이상]과 신념은 (백낙준, 『한국의 교육, 과학, 문화』, 1953.5)
- (9) [불란서 문학도의 반드시 통과해야 할 근대소설]... (박광선, 『스탕달론』, 1957.5)

위 예문들을 보면 비교적 최근이라 할 수 있는 1960년대 중반까지도 문어체에 서는 내포절과 수식절에서 주어가 속격으로 실현됨을 알 수 있다. 예문 (7a)를 보면, []로 표시된 부분이 후행명사 “짐승”을 수식하는 관계절 (혹은 관형절)로

서 관형절의 주어인 “일본”이 속격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문 (7b)는 다소 특이한 경우로서, []로 표시된 부분이 조건절로서 역시 주어가 속격으로 실현된 경우이다. 이런 예를 볼 때, 이 시기 한국어에서는 모든 종속절 (내포절, 수식절, 조건절 등)에서 주어를 속격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문 (8)에서는, (7a)와 마찬가지로, []로 표시된 부분이 명사 “이상”을 수식하는 절이며, 이 수식절의 주어인 “위대한 인물들”이 속격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문 (9)도 마찬가지이다. []로 표시된 부분이 후행명사 “근대소설”을 꾸며주는 수식절로서 이 수식절의 주어인 “불란서 문학도”가 속격으로 실현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구어체 현대 한국어에서는 내포절, 수식절, 조건절 등 모든 종속절에서 속격 주어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일부 굳어진 표현에서 그 흔적을 살펴볼 수 있으나,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속격주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는 종속절에서 속격주어를 사용하는 현대 일본어와 현대 한국어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³⁾

2.2 성경 번역본에 나타난 속격 주어

이 절에서는 1954년 판 번역 성경에 나타난 속격 주어 현상을 살펴본다. 본고에서 참조한 성경 번역본은 대한성서공회가 1954년에 처음 발간한 『성경전서』와 그 이후 간행된 1961년 판, 1998년 판 등이다. 그러나 본 논문의 주제인 속격주어와 관련해서는 이들 판본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1954년 판을 참조한다.

먼저 다음 예문들을 보자.

- (10) a.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b. God saw that the light was good, and He separated the light from the darkness. (『창세기 1:4』)

위 예문들에서 영어본은 God이 동사 saw의 주어이지만, 한국어 번역본에서

3) 관련된 논의는 2.2절 참조.

는 “하나님의 보시기에”가 심시동사의 “좋았더라”의 보충어로 처리되고 있는데, 이 보충어 내포절의 주어인 “하나님”이 속격으로 실현되고 있다. 즉 원문과는 상관없이 번역문에서 내포절이므로 그 주어가 주격이 아니라 속격으로 번역된 것이다. 한국어판 성경번역은 물론 여러 사람들이 중국어본, 일본어본, 영어본 등을 참조하였으므로, 어느 특정 시기의 특정한 번역자에 의한 한국어 번역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1954년 판 성경에는 내포절의 주어가 규칙적으로 속격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종속절에서 주어가 주격이 아니라 속격으로 구현되는 현상은 현대 일본어의 두드러진 특징이기도 하다.⁴⁾ 즉 현대 일본어에서는 내포절이나 수식절에서 주어가 늘 속격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현상은 성경 번역에서도 이는 예외가 아니다. 다음의 일본어 성경 번역문 예를 보자. 특히 한국어 번역문과의 공통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11) a. [水-の 集まった 所]-を 海と 呼ばれた。
 mizu-no atsuma-tta tokoro-o umi-to yoba-re-ta
 water-Gen gather-Past place-Acc sea-as call-Past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창세기 1:10」)
- b. [ロト-の 住んでいた 低地-の 町々]-は 滅ぼされたが、
 roto-no sunde-ita teichi-no himachi-wa horobosareta-ga,
 Lot-Gen live-Past ground-Gen town-Top destroy-Past-but
 ‘롯의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창세기」 19:29)
- c. [わたし-の 好きな おいしい 料理]-을 作り、
 watashi-no sukina oishii ryouri-o tsukuri,
 I-Gen like tasty food-Acc make,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창세기 27:4」)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일본어에서는 내포절과 수식절 내부의 주어가 속격으로

4) 일본어는 중세 일본어, 현대 일본어를 불문하고 주격-속격 대체 현상은 매우 광범위하며, 이에 관한 연구들이 수없이 많으나, 여기서의 논의주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다만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Bedell (1972), Maki & Uchibori (2006), Miyagawa (1989), Nakai (1980), Ochi (2001), Watanabe (1994).

표시된다. (11a)를 보자. []로 표시된 부분은 “所”를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이 관계절의 주어는 속격형인 “水-の”이다. 한국어 번역에서는 “모인 물”로 되어 있지만, 일본어식으로 번역한다면 “물의 모인 곳”이 될 수 있다. (11b)에서는 []로 표시된 부분이 후행 명사 “町々”를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이 관계절의 주어가 속격형인 “ロト-の”로 실현되고 있다. 한국어 성경에서도 번역문 “룻의 거하는 성”에서 보듯이 일본어에서처럼 속격주어로 실현되고 있다. (11c)에서는 []로 표시된 부분이 후행명사 “料理”를 수식하는 수식절로서 이 수식절의 주어가 속격형인 “わたし-の”로 실현되고 있다. 한국어 번역문 “나의 즐기는 별미”에서 보듯이 한국어 성경에서도 속격주어로 번역되고 있다.

물론 한국어 성경 번역본이 일본어의 이러한 속성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현대 한국어에서 성경과 같은 특수한 영역을 제외하고는 종속절의 주어를 속격이 아니라 주격으로 번역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본어를 판본으로 하여 1954년 판 한국어 성경을 번역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일본어의 이러한 문체를 모방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한 가능성보다는 중세 한국어가 일본어와 마찬가지로 종속절의 주어를 속격으로 표시해왔던 관습에 따라 현대 한국어라고 할 수 있는 1954년판 성경에서도 속격주어가 나타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대로, 속성상 언어의 보수성을 띠게 마련인 종교관련 문헌에서는 아직도 속격 주어와 같은 중세 한국어 혹은 근대 한국어의 관행들이 나타날 뿐이다. 속격 주어는 1954년판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을 불문하고 전체에 걸쳐 나타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속격 주어가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관행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성경에 나타난 속격 주어 예문들을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2) a.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세기』2:2)
- b.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18)
- c.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1)

- d.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짓]은 밭의 채소인즉 (창세기 3:18)

속격 주어의 예는 창세기의 번역가에게만 국한된 것은 물론 아니고, 성경의 대부분 장과 절에서 속격 주어가 발견된다. 가령 구약의 다른 장인 출애굽기, 레위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등 모든 장과 절에서 나타난다. 속격 주어는 신약성서 번역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나는데,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3)a.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리라 (「마태복음」17:13)
 b.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마가복음」10:13)
 c. 우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사도행전」14:11)
 d.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갈라디아서」4:2)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하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1954년 판에서 내포절과 수식절의 주어가 속격으로 일관성 있게 번역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성경 번역자의 개인적 취향이나 방언 배경과 무관하게 적어도 1954년 당시까지는 비록 성경이라는 특수한 문체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속격 주어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통사론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속격 주어가 아니라 후행하는 명사를 직접 수식하는 속격 한정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⁵⁾ 그러나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자료에 나타나는 속격 명사는 주어임을 부정할 수 없다. 먼저 다음 예문을 보자.

5) 각주 (1)번 참조.

- (14) a.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
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마태복음, 21:15)
b.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마
태복음, 26:19)

위 예문들의 속격 명사는 어떠한 한국어 통사론자라 하더라도 주어임을 부인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개 한국어 통사론에서 주어임을 검증하는 한 가지 방법은 문장의 주어만이 서술어에 ‘-시’가 나타나도록 하는 요소이다. 가령 문장의 주어가 말하는 사람 (화자)보다 신분이 높을 경우 서술어에 ‘-시’를 첨가해야 한다. 예를 들며 다음과 같다.

- (15) a. 선생님께서 오셨다.
b. *선생님께서 왔다.

위 예문 (15a-15b)에서 보듯이 화자는 주어인 “선생님”보다 사회언어학적 의미에서 지위가 낮고 따라서 서술어 “오다”에 ‘-시’를 붙여야 한다. (15a)가 자연스럽고, (15b)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제 (14)의 예문들로 돌아가서 이러한 주어 검증 방법을 적용해보자. (14a)에서는 []로 표시된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에서 보다시피, 서술어 “하시는”의 주어는 속격으로 표시된 “예수의”일 수밖에 없다. (14b)에서도, 밑줄 []로 표시된 [예수의 시키신 대로]에서 서술어 “시키신”으로 미루어보아 주어는 속격형인 “예수의”임에 틀림없다. 앞에서 살펴본 (8d)에서도 []로 표시된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에서 서술어 “행하신”으로 보아 주어는 속격형인 “예수의”이다.⁶⁾

지금까지 논의를 요약하면, 1954년판 한국어 성경을 살펴보면 내포절과 수식절에서 주어가 주격보다는 속격으로 실현된다는 사실로서, 속격 주어는 구약 성경과 신약성경 전체에 걸쳐 번역자와 원천언어에 상관없이 매우 광범위하게

6) 통사론에서는 “-시”를 이용한 주어 검증방법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여기서 주는 주어 검증을 더 이상 자세하게 논의하는 것은 이 논문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속격 명사가 주어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방법은 서술어에 “-시”가 붙는가의 여부인데, 성경 번역에 나타난 속격 주어는 서술어에 “-시”가 있음을 통해 주어임을 확정할 수 있었다.

3. 1973년판에 나타난 주격 주어

이 절에서는 1973년판 한국어 성경 번역본에서 내포절과 수식절의 주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⁷⁾ 편의를 위해 예문들은 2절에서 언급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 중의 하나는 초기 성경 번역본과 달리 1973년 판 번역본은 영어 성경을 참조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1954년판 번역과 1973년판 번역, 그리고 영어성경을 함께 제시하여 내포절과 수식절의 주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시각적으로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먼저 2절에서 보았던 (10-11)의 예문들을 보자. 편의상 아래에 (17-18)로 되풀이 하였다.

- (16) a.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b. God saw that the light was good, and He separated the light from the darkness. (창세기 1:4)
- (17) a.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b. God called the dry ground “land,” and the gathered waters he called “seas.”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창세기 1:10)

이 두 구절은 1973년판 한국어 성경번역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고쳐졌다.

- (18)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7) 본 논문에서 사용한 한국어 번역 성경은 1973년에 간행된 『한영 현대인의 성경』인데, 이 판본은 그 후 1998, 2001, 2003, 2009년에 계속해서 간행되어왔지만, 우리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판본들 간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1973년 판본으로 부를 것이다.

(19)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문 (18-19)에서 보듯이 1954년판에서는 속격으로 표시되었던 “하나님의”가 1973년 판에서는 주격인 “하나님이”로 표현되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수정이 구어체와 문어체, 혹은 일반 언어관행과 종교문서의 언어관행에서 나타나는 괴리를 제거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을 끄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수정이 시간적으로 볼 때 겨우 50년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내포절이나 수식절에 속격 주어를 사용하던 것이, 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1960년대까지도 간혹 이어지고 있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변화는 매우 획기적인 언어 변화라 할 수 있다. 외부의 혹은 외계에서 온 언어학자가 한국어의 변화를 연구하는 경우를 상정해본다면, 그 언어학자는 틀림없이 한국어가 50년 만에 속격 주어에서 주격 주어를 사용하는 언어로 성격이 바뀌었다고 진단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번역본이야말로 한국어의 언어변화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소중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1973년판 한국어 성경 번역본에는 이 외에도 속격주어를 주격주어로 바꾼 예가 수없이 나타난다. 1954년판 한국어 번역 성경과 1973년판 번역문을 비교해보자.

(20) 「창세기」 10:30

- a.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 산이었던더라 (1954년)
- b.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던더라 (1973년)
- c. [The region where **they** lived] stretched from Mesha toward Sephar, in the eastern hill country.

예문 (21)에서 보듯이 속격 “그들의”는 “그들이”로 바뀌었고, 영어 성경에서는 주격 “they”로 나타나고 있다. 또 다음 예문을 보자.

(21) 「창세기」 18:17

- a.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1954년)

- b.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1973년)

- c. Then the LORD said, “Shall I hide from Abraham [what I am about to do]?”

위 예문 역시 창세기에 나오는 구절로 1954년 번역본에는 수식질의 주어에 속격형인 “나의”로 표기되어 있지만, 1973년 개정판에는 주격인 “내가”로 번역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영어 번역본에는 주어인 “I”로 표기되어있다. 구약 성경을 통틀어 이러한 변화는 수없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본고에서 그러한 사례들을 모두 보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사례만으로도 내포절과 수식질의 주어에 1954년판 번역본에서는 속격으로 표시되었으나 1973년 번역본에서는 주격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보이는 데는 충분할 것이다. 다음 예문들은 신약 성경에서 발췌한 예문의 일부이다.

(22) 「마태복음」 17:13

- a.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
니라 (1954년)
- b.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
달으니라 (1973년)
- c. Then the disciples understood that [he was talking to them] about
John the Baptist.

위의 예문들은 모두 신약 성경에서도 속격형 주어에 개정판에서 주격형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주격 조사가 존칭의 여부에 따라 ‘-이/가’ 대신에 존칭의 ‘-께서’로 실현되는 점이 다를 뿐이다.

4.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절에서는 1954년도 한국어 성경 번역본에서 내포절과 수식질 (혹은 관계절)의 주어에 속격으로 실현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격 표시는 성경 뿐 아니라 일부 언론 기록물에서도 발견되는데, 놀라운 것은 속격 주어가 1960년대까지도 간헐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중세 한국어의 속격 주어가 일본어의 속격 주어와 마찬가지로 내포절과 수식절에서 주로 나타났는데, 일본어가 속격 주어만을 허용하는 것과는 달리 중세 한국어에서는 주격과 속격이 상호 교체하는 점이 다르다. 3절에서는 1973년도 한국어 성경 번역본에서 속격 주어들이 예외 없이 주격으로 바뀐 점을 살펴보았다.

내포절과 수식절에서 주어의 격 형태가 속격에서 주격으로 바뀐 것은 그 자체로 언어학적 관심과 분석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그러한 변화가 문어체 기록물에서 50여년 만에 전면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매우 독특하고 획기적인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의 목적 상 통사적, 역사 언어학적 분석을 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역본의 차이점을 보이고, 현대 한국어에서의 주어의 격이 성경 번역본과 같은 특수한 문체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고찰하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어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연구하거나, 번역의 변화 과정을 연구하고자 하는 외부 학자에게는 50여년 만에 전면적으로 바뀐 내포절 주어의 격변화가 매우 전면적이고 확실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문을 포함한 언론 자료에서도 속격 주어가 1960년대까지도 간헐적으로 사용되었음을 감안한다면, 내포절과 수식절 주어의 격 변화는 구어체에서의 변화를 문어체가 느리게 수용한 것이고, 성경과 같은 보수적인 기록문들이 그보다 더 느린 속도로 이를 수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인용 자료

『성경전서』 (1954) 서울: 대한 성서공회.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1961) 서울: 대한성서공회.

『한영 현대인의 성경』(1973) 서울: 생명의 말씀사.

『성경전서』 (1998) 서울: 대한성서공회.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1984) Colorado Springs: International

Bible Society.

참고문헌

- 서정목 (1981) 「15세기 국어 동명사 내포문의 주어의 격에 대하여」, 『진단학보』 53 · 54: 171-192.
- Bedell, George (1972) 'On no', *UCLA Papers in Syntax 3: Studies in East Asian Syntax*: 1-20.
- Jang, Youngjun (1995) 'Genitive subjects in Middle Korean',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6: 223-234.
- Jang, Youngjun & Kwan-Hyeok Im (2010) 'Disappearance of the genitive subject in Korean',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13: 417-426.
- Maki, Hideki & Asako Uchibori (2006) 'An integrated approach to nominative/genitive conversion in Japanese', Paper presented at the 3rd Workshop on Altaic in Formal Linguistics, Moscow State University, Moscow, Russia, May 22, 2006.
- Miyagawa, Shigeru (1989) 'Case, agreement and ga/no conversion', *Japanese/Korean Linguistics* 3, (ed) Soonja Choi: 221-235.
- Nakai, Satoru (1980) 'A reconsideration of ga-no conversion in Japanese', *Papers in Linguistics* 13: 279-320.
- Ochi, Masao (2001) 'Move F and ga/no conversion in Japanese',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10: 247-286.
- Watanabe, Akira (1994) 'A crosslinguistic perspective on Japanese nominative-genitive conversion and its implications for Japanese syntax', *Manuscript*, Tokyo University.

[Abstract]

Genitive Subjects in English-Korean Translation of the Bible

Jang, Youngjun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case forms of the subjects of embedded and relative clauses in English-Korean Bible translation. We first examine the case forms of the 1954 version of the Bible and compare them with those of the 1973 version. Unlike the genitive subjects in the former, we have seen that the subjects of the embedded and relative clauses in the 1973 version of Bible are nominative case-marked. Why is it so? We found that Middle Korean allowed genitive subjects in embedded and relative clauses, just like Modern Japanese. However, this kind of case system gradually disappeared, leaving behind a small number of genitive case forms in newspapers and other written forms. Genitive subjects have been found to be widely used in religious recordings including Bible translation, for example, the 1954 Korean version. Genitive subjects, however, have been changed to nominative subjects in the 1973 version. This change of case form found in the two Korean versions of the Bible may suggest that the mismatch between the spoken and written Korean, especially the written form of religious recordings, has finally been removed.

▶ Key Words: genitive, subject, translation, nominative, embedded clause

장영준

중앙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교수

yjang@cau.ac.kr

관심분야: 대중교양 및 전문서 번역, 번역학 이론

논문투고일: 2010년 10월 16일

심사완료일: 2010년 11월 28일

게재확정일: 2010년 11월 30일